

2022년 모의논술고사 문제지 (인문영역)

수험 번호		성 명	
-------	--	-----	--

[문항 1] 가의 ㉠을 바탕으로 나,의 ‘눈’을 해석하고, 이를 나,의 ‘눈’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700 ± 50자)

가

2015년 11월 13일 금요일, 유럽의 한 도시가 충격에 빠졌다. 테러였다. 130명의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죽은 자의 아픔과 산 자의 슬픔이 온 세계를 뒤덮었다. 며칠 후, 유럽의 방송 매체 <르프티주르날(Le Petit Journal)>이 올린 동영상이 떴다. 비통과 절망에 빠진 도시,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꽃다발과 촛불이 가득 놓인 광장에서 이민자인 아빠 양겔과 아들 브랑동이 대화하는 모습을 찍은 영상이었다. 순진하게만 보이는 어린 아들이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테러를 피해 이사 갈 걱정까지 한다. 그러자 아버지가 따스한 표정으로 그에게 말한다.

“아니야, 걱정할 필요 없어. 집은 옮기지 않아도 된단다. 프랑스가 우리 집이야.”

“그렇지만 나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빠.”

“나쁜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단다.”

“나쁜 사람들은 총이 있고 우리를 쏠 수도 있어요. 나쁘고 총이 있으니까요, 아빠.”

“봐봐. 그들은 총을 갖고 있지만 우리에게만 꽃이 있잖니?”

“하지만 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들은 우리들을, 우리들을…….”

“사람들이 놓아둔 저 꽃들이 보이지? 총에 맞서 싸우기 위한 거란다.”

“꽃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요?”

“그렇게 말고!”

“촛불도요?”

“그래, 그건 우리를 떠난 사람들을 잊지 않기 위한 거야.”

㉠ 꽃이 우리를 지켜 주고 촛불이 떠나간 이들을 잊지 않게 해 준다는 말에 브랑동은 비로소 안심한 듯 미소를 짓는다. 하지만 이 인과 관계에는 엄청난 비약이 존재한다. 꽃이 총을 이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꽃을 바치고, 꽃을 바치는 사람이 저렇게 많으니,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될 거라는 비약. 어린아이라서 순진한 탓일까, 아니면 어린아이기에 현자(賢者)인 탓일까. 브랑동은 이 비약을 가뿐히 넘어선다.

정재찬, <총, 꽃, 시>, 『고등학교 문학』

나

눈은 살아 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눈은 살아 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김수영, <눈>, 『고등학교 문학』

다

간밤의 눈 갠 후에 경물이 달랠고야
*이어라 이어라
압희는 *만경류리 뒤희는 *천텃옥산
지국총 지국총 어스와
선계니가 불계니가 인간이 아니로다

*이어라 : '노를 저어라'라는 의미의 여음구

*만경류리(萬頃琉璃) : '만 이랑의 유리'라는 뜻으로, 유리처럼 맑고 평온한 아름다운 바다를 이르는 말

*천텃옥산(千疊玉山) : 수없이 겹쳐 있는 눈 덮인 산

윤선도,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고등학교 문학』

출제의도 및 해설

[문항 C-1]

<출제의도>

이 문항은 문학예술의 중요한 특징인 '비약'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이 실제 텍스트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학생들은 서로 다른 문학 장르에서 나타나는 수사적 비약, 혹은 의미론적 비약의 모습들을 찾아내고 비교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학생들은 야만적인 현실 속에서 문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문항해설>

제시문 (가)는 테러라는 야만적 행위에 맞서 '꽃'과 '촛불'을 든 시민들의 모습을 통해, '꽃'이라는 약함이 어떻게 '총'이라는 강함을 이길 수 있으며, 그런 비약이 어떻게 현실에서 가능한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이러한 비약은 제시문 (나)에 나타나는 문학적 비유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다. 예컨대,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을 살아 있는 존재로 파악하는 역설적인 인식은, 객관적 사물로서의 '눈'이 땅에 떨어지자마자 녹아 없어지는 약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좌절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도 녹지 않는 강한 것이 되게 만든다.

한편, 제시문 (다)는 눈 갠 후 풍경을 보고 난 뒤, 그 감상을 시적으로 전환해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서 '눈'이 가지고 있는 '희고 깨끗한' 속성은 비속한 인간의 세계마저 선계나 불계로 변화시킨다. 학생들은 제시문 (가)를 통해 '비약'의 개념과 그 속에 내포된 의미를 이해하고, 제시문 (나)에서 '비약'에 해당하는 시적 표현을 찾아내어 그것을 제대로 해석하며, 이를 제시문 (다)의 표현과 비교하여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서술해야 한다.

채점기준

[문항 C-1]

<채점항목>

- ① 제시문 (가)를 통해 '비약'의 표현 방법과 그 속에 내포된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력, 추론력, 창의력]
- ② 제시문 (나)에서 '비약'에 해당하는 시적 표현을 찾고 그것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가? [이해력, 추론력, 창의력]
- ③ 제시문 (다)에서 '눈'의 의미와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력, 분석력, 추론력]
- ④ 제시문 (나)와 (다) 속 '눈'의 차이를 파악하고 있는가? [이해력, 분석력, 논리력]
- ⑤ 어문규정, 원고 분량 등을 지키고 있는가? [구성력, 표현력]

<채점기준>

등급	요건
A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B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그 중 ① 또는 ②에 대한 기술이 다소 미흡하다.
C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그 중 ③ 또는 ④에 대한 기술이 다소 미흡하다.
D	위의 요건 가운데 ①, ②, ③, ④, ⑤ 중 하나가 기술되지 않거나, 그 중 둘 이상이 매우 불충분하다.
E	위의 요건 가운데 하나 정도만 언급되어 있거나, 전반적으로 이해가 부족하다.

2022년 모의논술고사 문제 (사회영역)

수험 번호		성 명	
-------	--	-----	--

[문항 2] **가**의 맹자의 직분론에 대하여 **나**의 데이비스와 무어의 계층 이론이 갖는 의의를 서술하고, **다**의 ㉠과 ㉡ 사례를 바탕으로 **나** 이론의 한계를 논술하시오. (700 ± 50자)

가

맹자는 생업(직업)의 수행이 곧 윤리적 인격과 정서적 안정의 조건이며, 신분에 따른 사회적 분업과 직업 간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강조하였다. “대인의 일이 있고, 소인의 일이 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을 수고롭게 하고, 어떤 사람은 힘을 수고롭게 하니,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남을 다스리고, 힘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남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말하며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구분하고, 양자의 상보성과 노력자(勞力者)에 대한 노심자(勞心者)의 세심한 배려를 강조하였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나

다음은 데이비스와 무어의 계층 이론에 대한 요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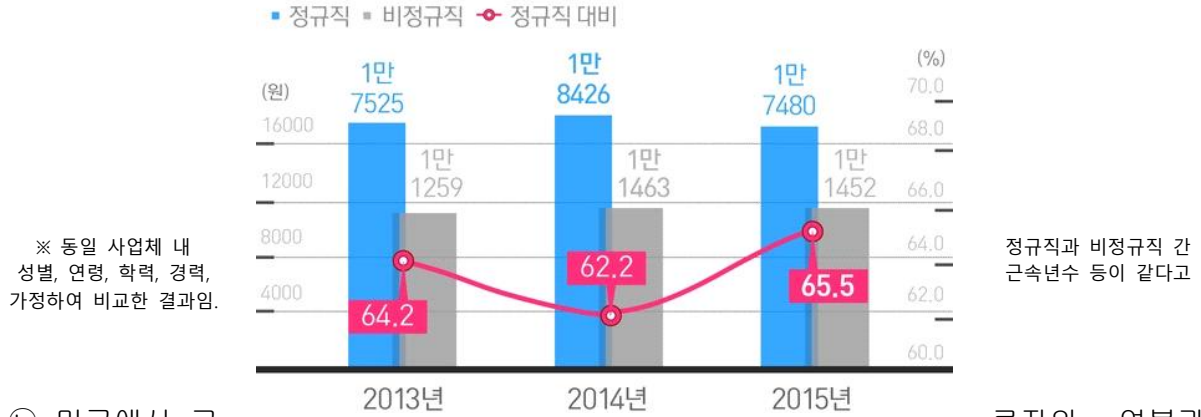
- 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작업과 일을 필요로 한다.
- 사회에는 기능적으로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이 있는데, 더 중요한 일은 어렵고 일정한 훈련을 필요로 한다.
- 기능적으로 중요한 일을 담당할 재능 있는 자는 제한되어 있다.
- 재능 있는 사람들이 기능을 훈련받기 위해서는 금전적·시간적 희생이 필요하다.
- 재능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희생을 감수하고 그 일을 맡게 하려면 그 지위에는 사회적 희소가치를 더 분배 받을 수 있는 특권적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 기능적 중요도에 따라 사회적 희소가치를 차별적으로 분배한 결과, 제도화된 사회적 불평등이 나타난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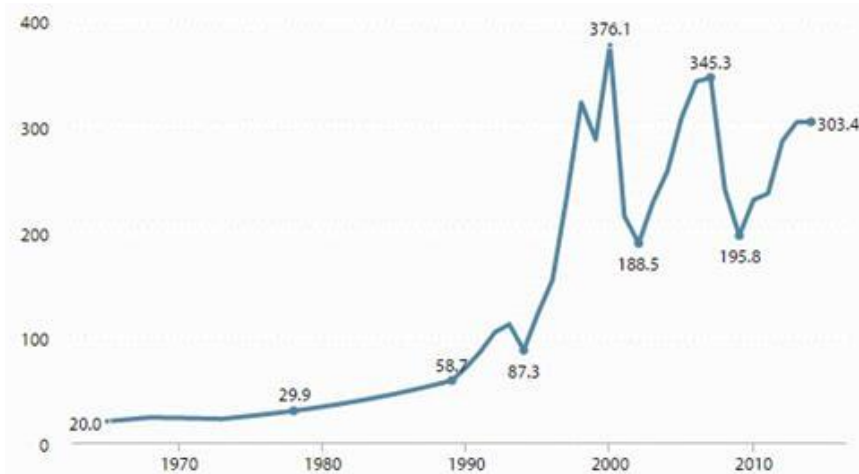
㉠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6월 기준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1만 1452원으로,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총액인 1만 7480원과 비교하여 65.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수준



㉔ 미국에서 근로자의 연봉과 최고 경영자(CEO)의 연봉 격차가 300배 수준으로 벌어지면서, 경영진의 보상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미국 경제 정책 연구소(EPI)가 미국에서 매출 규모 350위 이내 기업의 최고 경영자와 근로자의 연봉을 조사한 결과 각 사업장에서 나타난 최고 경영자와 근로자 연봉 비율의 평균이 303:1로 나타났다. 참고로 조사 대상 기업들의 평균 연봉은 최고 경영자가 1630만 달러(약 186억 원), 근로자는 5만 6400달러(약 6400만 원)이다. 이들의 연봉 비율은 1965년에 20:1이던 것이 1978년 30:1, 1989년 60:1로 늘었고 2000년에 376:1로 정점을 찍었다.

미국 내 최고 경영자와 근로자 간 연봉 격차



『고등학교 통합사회』

출제의도 및 해설

<출제의도>

이 문항은 현행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일과 직업, 사회 불평등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나 관점을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또한 표와 그래프를 통해 나타나는 사회 불평등 현상의 실제 사례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분석하게 함으로써, 이론을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문항해설>

제시문 (가)는 생업의 수행에 있어 서로 다른 직업 간의 보완적 역할을 강조하나, 사람의 신분에 따라 수행하는 일과 가치도 다르다는 신분적 불평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 반면 제시문 (나)는 기본적으로 사람은 평등한 존재라고 여기며, 개인이 수행하는 일의 사회적 중요성에 따른 차등적인 보상과 사회적 불평등이 불가피하다고 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제시문 (다)의 ㉠은 동일한 근로 조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대비 임금을 적게 받고 있는 것을 나타내며, 고용 형태의 차이에 따른 불평등이 실재함을 보여준다. ㉡은 미국에서 근로자와 최고 경영자가 받는 보상 간의 격차가 급격히 커져 왔으며, 격차의 정도에 대한 논쟁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제시문 (나)의 이론은, 제시문 (다)의 ㉠ 사례와 같이 일의 중요성이 아닌 고용 형태에 따라 차별적인 보상과 불평등이 나타나는 현실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제시문 (다)의 ㉡ 사례는 일의 사회적 중요도에 따른 보상에 있어, 실제 어느 정도의 차등을 두어 보상을 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정하거나 합의하기 어려움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나) 이론의 한계를 보여 준다.

채점기준

<채점항목>

- ① 제시문 (가)의 이론이 사람에 대한 신분적 불평등을, 제시문 (나)의 이론이 일의 사회적 중요성에 기반한 불평등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력, 분석력]
- ② 제시문 (가)와 대비되는 제시문 (나) 이론의 의의를 설명할 수 있는가? [분석력, 추론력, 논리력]
- ③ 제시문 (다)의 ㉠과 ㉡ 사례가 가진 차이점을 기반으로 (나) 이론이 제시문 (다) 상황에서 가지는 한계점을 지적할 수 있는가? [분석력, 추론력, 논리력]
- ④ 어문규정, 원고 분량 등을 지키고 있는가? [구성력, 표현력]

<채점기준>

등급	요건
A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B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그 중 ①, ②, ③, ④ 가운데 하나가 다소 미흡하다.
C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그 중 ①, ②, ③, ④ 가운데 둘이 다소 미흡하다.
D	위의 요건 가운데 ①, ②, ③, ④ 중 하나가 기술되지 않거나, 그 중 둘이 매우 불충분하다.
E	위의 요건 가운데 둘 이상이 매우 불충분하게만 언급되어 있거나, 전반적으로 이해가 부족하다.